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6년 2월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5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문의 :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, 송영상 사무관(044-203-5262)

산업부 장관, "빠른 속도의 에너지 신산업 투자 당부"

◇ **주형환 장관, 「에너지新산업 간담회」 개최**

- **주요 기업, 내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8.2조원 투자**
- **기업들, ESS 지원체제 강화, 태양광 보급을 위한 프로슈머 거래 확대,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요청**

◇ **주장관, "건의 사항 중 일부는 무투회의 때 답을 주겠다" 답변**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**은 2월 15일(월) 오후 국내 주요기업 및 중소·벤처기업과 **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**

< 간담회 개요 >

· (일시 및 장소) '16.2.15(월), 15:00 ~ 16:30 / 조선호텔 오키드룸
· (참석자) 산업부 장관, 에너지新산업관련 대·중소기업, 전력공기업, 금융지원기관 등 30여명
· (간담회 의미) 취임 후 에너지 신산업만을 주제로 한 간담회는 최초

□ 주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**4大 중점추진 정책방향**을 언급

① **과감한 규제완화**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의 투자를 유도

②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**「공기업-민간 해외진출 협의체」**를 가동하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

③ 다른 업종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융복합 R&D를 통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**「융합 얼라이언스」 추진**

④ **국내 중소·벤처기업**의 에너지신산업 참여기회를 확대

□ 주요 대기업은 **내년까지 에너지 新산업에 총 8.2조원을 투자**

○ 에너지 저장장치(ESS), 전기차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효율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·기술개발 등이 주요 투자 분야

□ 금번 간담회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**대기업, 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이 다함께 참여**해 의견을 개진

○ 배터리, 전기차, 태양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**대기업은 주로 안정적 투자와 시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**를 요청

< 주요 건의사항 >

· (한화 큐셀)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 규제 완화
· (KT) 에너지 효율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력 분야 빅데이타의 적극적 공개
· (SK) ESS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현장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
· (포스코) 공기업 투자 전기차 충전소의 민간 개방 확대

○ 스마트미터, 수요자원,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**중소기업은 사업 기회확대와 해외진출 시 공기업의 적극적 지원**을 주문

< 주요 건의사항 >

· (이젝스) 중소기업의 국내 솔루션 실증 기회 확대와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
· (IDRS) 한전 등 공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함께 나가야
· (벤처협회)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

□ 주형환 장관은 **기업 건의와 제언에 대해 적극적 실천**을 약속

○ 우선,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선도투자 확대 정책*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는 완화

*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 완화, ESS 전력거래 허용, 전력 10大 프로젝트 등

○ 다양한 업종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, 융복합 R&D를 통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**「융합 얼라이언스」도 구성**

* (전기차/스마트카) 완성차, 배터리, 통신, IT, 보험 업계 등 참여
(제로에너지빌딩) 고효율기기, 신재생, 건축설계, 건설업계 등 참여

□ 특히, 주장관은 기업 건의 사항 중 효과가 크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**무투회의(2.17) 때 직접 답을 주겠다고 강조**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16 16:16:40

참 고 **참석자 명단**

구 분		소 속	성 명	직급
주요 대기업	LS산전	LS 산전	구 자 균	회장
	LG	LG전자	이 상 봉	사장
	한화	한화큐셀	남 성 우	사장
	SK	SK E&S	유 정 준	사장
	포스코	포스코 ICT	최 두 환	사장
	삼성	삼성SDI	조 남 성	사장
	KT	KT	맹 수 호	부사장
	현대차	현대자동차	박 광 식	부사장
중소·벤처기업 컨설팅 등	솔루션	이젝스	유 창 현	사장
	AMI	누리텔레콤	조 송 만	사장
	DR	IDRS	강 혜 정	사장
	EMS	ANYGATE	서 정 일	사장
	벤처기업	벤처기업협회	정 준	회장
	컨설팅	맥킨지	송 경 열	부파트너
전력공기업		한국전력	조 환 익	사장
		한국수력원자력	조 석	사장
		남동발전	허 엽	사장
		동서발전	김 용 진	사장
		서부발전	조 인 국	사장
		중부발전	정 창 길	사장
		남부발전	윤 종 근	사장
금융·해외진출 지원기관		무역보험공사	김 영 학	사장
		수출입은행	장 영 훈	부행장
		산업은행	전 영 삼	부행장
		KOTRA	함 정 오	부사장